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 :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및 모의 자아인식의 중재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al Roles and
Postpartum Depress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Self-Perception*

서미정(Mijung Seo)¹⁾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self-perception (self-efficacy,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al roles and postpartum depression.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1,863 mothers with infants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 father's involvement in the parental role,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self-efficacy, self-esteem and postpartum depress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s involvement in the parental role and postpartum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both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Finally, both self-efficacy and self-esteem were seen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s involvement in the parental role and postpartum depression.

Key Words : 부의 양육참여(father's involvement in parental roles), 산후 우울(postpartum depression),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아존중감(self-esteem).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요약문의 전문임.

¹⁾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jung Seo,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bella2001@pnu.kr

I. 서 론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보람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로 여겨지는 반면, 어머니 역할로의 이행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중시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Stern, 1995). 특히 산욕기(postpartum period)는 모성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신체적 변화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생애 주기에서 우울이 발병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다(O'Hara, 2009). 산욕 초기부터 출산 후 2년 이내까지 우리나라 산모들의 약 10~25%가 산후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권미경 · 김혜원 · 김남선 · 장정애, 2006; 박영주 · 신현정 · 유호신 · 천숙희 · 문소현, 2004; 안영미 · 김정현, 2003; 조현주 외, 2004), 이러한 유병율은 국외에서 보고된 10~15%(Liabsuetrakul, Vittayanont, & Pitanupong, 2007; Moses-Kolko & Feintuch, 2002; O'Hara, Schlechte, Lewis, & Varner, 1991; Righetti-Veltema, Bousquet, & Manzano, 2003)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산후 우울을 경험한 여성들은 향후 5년 이내 우울증에 걸릴 위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산후 우울이 지속적으로 산모의 정신건강을 해치기 쉽다는 점에서(O'Hara, & Zekoski, 1988; Philipps & O'Hara, 1991),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어머니의 우울은 영아와의 상호작용(Civic & Holt, 2000; 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및 애착형성(Cramer, 1993)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산후 우울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영아에게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영아의 행동에 주의를 덜 기울이며, 영아의 신호에 반응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제영 · 이경숙 · 정유경 · 신의진, 2011). 이러

한 영아-모간의 상호작용이 산후 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와 영아가 맺게 되는 애착관계를 덜 안정적이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Martins & Gaffan, 2000). 또한 우울한 여성들은 인지왜곡, 부정적 평가 및 감정표현의 부족으로 인해 갈등적인 부부관계를 경험하기도 한다(신유경, 2011; Hammen, 1992).

이와 같이 산후 우울은 여성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모-자녀관계 및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기여함에 따라, 산후 우울의 예방 및 중재 개입을 위해 산후 우울과 관련된 변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이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녀 출산 후 6주에서 1년 이내에 어머니가 경험하는 우울은 영아의 기질(권미경 외, 2006; 천희영 · 옥경희, 201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권정혜, 1997; 박영주 외, 2004; 조영숙, 1992) 및 자기효능감(신유경, 2011), 양육지식, 양육방식 및 양육스트레스 등의 양육관련 요인(권미경 외, 2006; 권정혜, 1997; 김지양 · 김정규, 2008; 천희영 · 옥경희, 2010), 결혼적응도(여정희, 2006), 부부갈등(신유경, 2011), 그리고 배우자, 가족 및 가족 외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박영주 외, 2004; 여정희, 2006; 조영숙, 1991; 천희영 · 옥경희, 2010; Liabsuetrakul et al., 2007) 등 다양한 변인들이 산후 우울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후 우울 관련변인들 가운데 맥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특히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가 산모의 정신건강에 영향력 있는 결정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Williamson & English, 1981). 게다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핵가족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함께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숙희 · 고인숙 · 최향숙, 2003),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남성의 양육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 구성에 한계가 있다. 이것은 산후 우울 감소를 위해 부의 양육참여를 증가시키는 개입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아버지 역할로서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와 산후 우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밝히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즉 부의 양육참여가 어떻게 산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산후 우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중재 방안 마련에 효율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 시간은 부부관계와 관련되며(Belsky & Isabella, 1985),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감소되는 것과 관련되었다(안재진, 2011). 이러한 결과들은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실재는 부부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부관계의 부정적 측면인 부부갈등은 산후 우울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유경, 2011).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의 양육참여는 산후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부갈등을 낮춤으로써 산후 우울이 감소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부부갈등과 함께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주며, 부의 양육참여와 결혼만족도간의 정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안재진, 2011),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긍정적 지표로서 결혼만족도와 부정적 지표로서 부부갈등이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의 양육참여가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개인차 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산후 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

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긍정적인 영아-모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와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중점적으로 개입해야 할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의 양육참여가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자아인식 요인인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행동은 외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능기대와 같은 인지과정을 매개로 일어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Bandura, 1977). 즉 자기효능감이 강한 개인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지만, 자기효능감이 약한 개인은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덜하고 쉽게 포기하게 된다. 모의 자기효능감과 산후 우울간에 부적 상관이 보고되었는데(신유경, 2011), 이는 모의 자기효능감이 부정적일수록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산후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 후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가중된 시기에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가 낮다해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일수록 산후 우울 수준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 따라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간의 관계는 모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다른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관련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판단하는,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평가 및 가치감을 의미하는 것으로(Rosenberg, 1965), 부적응의 기저에 자아존중감

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Gerber, Nehemkis, Farberow, & Williams, 1981). 즉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잘 적응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상이 많으며 적응적 문제를 가지게 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적 자원이며(Rosenberg, 1965; Tennen & Herzberger, 1987), 특히 산후 우울과도 부적 관련성이 보고되었다(박영주 외, 2004; 조영숙, 1992). 이는 출산 후 신체적 변화와 어머니 역할에 따른 심리적 긴장과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삶의 변화가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산후 우울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요인으로 간주되므로(김혜라, 2010), 스스로 자신을 수용하고 가치 있다고 평가할수록 부의 양육참여가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산후 우울을 경험하기 쉽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 중 현대사회에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산후 우울을 야기하는지 살펴보고, 부의 양육참여가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개인의 인지적 평가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의 긍정적, 부정적 지표인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의 매개효과와 모의 자아인식 요인인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산후 우울에 대한 이해를 더할 뿐 아니라 산후 우울 개입 전략 및 출산장려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산후 우울과 부의 양육참여,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모의 자아인식(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모의 자아인식(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만 1세 미만의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이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종단자료 구축을 위해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의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본은 신생아 분만이 이루어지는 전국의 의료기관¹⁾ 30곳을 추출하고, 표본 의료기관별로 패널 모집기간(2008년 4월~7월)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선정하는 층화 2단계 추출방법으로 표집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1차년도 최종 표본인 2,078 가구 가운데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1,863명²⁾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1) 2006년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의 6개 권역별로 층을 나누고, 각 층내에서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여 30개 의료기관을 추출함(조복희 외, 2009).
2)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거부한 가구를 위해 재구성된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속변인	N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모의 연령	1,863	31.28	3.74	30
범주변인	구분	빈도 (명)	비율 (%)	
모의 최종학력	중졸 이하	13	0.7	
	고졸	573	31.0	
	전문대(기능대학)졸	534	28.9	
	대학교졸	625	33.8	
	대학원(석사, 박사)졸	105	5.7	
	합 계	1,850	100.0	
모의 취업/학업	취업 중	525	28.2	
	학업 중	12	0.6	
	미취업/미취학	1,326	71.2	
	합 계	1,863	100.0	
대상 영아의 출생순위	첫째	876	47.2	
	둘째	772	41.6	
	셋째	185	10.0	
	넷째	21	1.1	
	다섯째 이상	3	0.2	
	합 계	1,85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36	1.9	
	101.5~300만원 이하	1,082	58.4	
	300.5~500만원 이하	593	32.0	
	500.5만원 이상	142	7.7	
	합 계	1,853	100.0	

과 같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28세이고,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취업 중인 모는 전체의 28.2%이었으며, 미취업 또는 미취학 모는 71.2%로 나타났다. 대상 영아의 출생순위는 첫째와 둘째가 각각 47.2%, 41.6%를 차지하였고, 셋째가 10%, 넷째 이상은 1.3%에 그쳤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1.5~300만

질문지에는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은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 1,864 가구 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 한 명이 제외되어 최종 1,863명임.

원 이하가 5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은 모두 자녀 출산 후 4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어머니가 응답하여 측정된 것이다.

1) 산후 우울

산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K6’(Kessler, Andrew, & Cople et al., 2002)는 미국 보건면접조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도록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이다.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불안, 무기력, 슬픔 등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안 느낌’(1점)에서 ‘항상 느낌’(5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총 6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2) 부의 양육참여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희경(1998) 및 홍성례(1995)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조사대상의 발달단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등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총 4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에서 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77로 나타났다.

3) 부부관계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 Nicols, Schectman과 Grigsby(1983)가 고안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Chung(2004)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문항은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총 4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에서 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가 고안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문항은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등에 대해 어머니가 평가하게 되어 있다. 원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총 8문항이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8점에서 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4) 모의 자아인식

(1) 자기효능감

모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Pearlin의

자기효능감 척도(Pearlin, Lieberman, Menaghan, & Mullan, 1981)가 사용되었다. 문항은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등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척도와의 일관성을 위해 모든 문항은 역으로 채점되었다. 총 4문항이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에서 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81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모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데는 Rosenberg(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The Self-Esteem Scale)가 사용되었다. 문항은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가끔씩 내가 쓸모 없다고 느낀다’ 등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과 가치의식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 전체와 문항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한 문항(‘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이 제외되었으며,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으로 채점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총 9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9점에서 3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87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1) 조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은 구조화된 질문지

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설문 조사는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2008년 4월~7월 중 병원방문조사를 통해 예비표본을 구축한 후, 대상 영아가 만 4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방문 2주 전에 우편조사용 어머니 질문지가 가구로 발송되었고, 발송 1주 후 조사원이 전화로 질문지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일정을 잡아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조사는 2008년 8월 25일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지속되었는데, 일부 대상 영아의 조사가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이 생후 4~8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다(조복희 외, 2009). 조사 참여에 동의한 예비표본은 2,562 가구였으며, 실제 1차년도 본조사에 응한 가구는 2,078 가구이다.

2) 자료 처리

가구방문 면접조사용 질문지는 면접원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질문에 대해 피면접자의 응답을 화면에 바로 입력하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식의 설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이은혜 · 이미리 · 박소연, 2006). 이 방법은 지필식 설문조사의 질문지를 CAPI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 질문지로 전환하고, 이를 노트북에 탑재하여 면접 현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응답 오류 등을 체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표 2〉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산후 우울	1,850	1	5	1.95	.70	.66	.54
부의 양육참여	1,859	1	5	3.58	.81	-.31	-.20
결혼만족도	1,857	1	5	3.81	.77	-.68	.66
부부갈등	1,858	1	5	1.99	.77	.80	.38
자기효능감	1,851	1	5	3.78	.68	-.42	.43
자아존중감	1,847	1.56	4	3.12	.44	-.20	-.04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점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및 모의 자아인식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II. 결과분석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부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고, 산후 우울과 부부갈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4점 평정 척도로 측정된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12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임

〈표 3〉 변인간 상관계수

	산후 우울	부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산후 우울	1.00					
부의 양육참여	-.20***	1.00				
결혼만족도	-.38***	.56***	1.00			
부부갈등	.51***	-.41***	-.65***	1.00		
자기효능감	-.55***	.18***	.31***	-.48***	1.00	
자아존중감	-.52***	.27***	.40***	-.46***	.55***	1.00

*** $p < .001$.

을 알 수 있다.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1에서 1사이에 있어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2. 변인들간 상관관계

준거변인인 산후 우울과 부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간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산후 우울은 부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모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부갈등과는 정적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모가 산후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은 남편이 아버지로서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 결혼만족도, 모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과 관련되었다. 또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산후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의 매개적 역할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

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 매개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변인인 부의 양육참여와 준거변인인 산후 우울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부의 양육참여와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과 준거변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 예측변인과 준거변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 때, 준거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만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 예측변인과 준거변인간 관계가 유의미하게 작아지는 경우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은 각각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1단계에서 부의 양육참여가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며, 2단계에서 부의 양육참여가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표 4〉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단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B	β	R ²	F	Sobel Test(Z)
1단계	산후 우울	부의 양육참여	-.26	.03	-.20***	.04***	73.17***	
2단계	결혼만족도	부의 양육참여	.53	.02	.56***	.31***	849.90***	
	부부갈등	부의 양육참여	-.78	.04	-.41***	.17***	373.175***	
3단계	산후 우울	부의 양육참여	.04	.03	.03	.15***	159.53***	-12.20***
		결혼만족도	-.55	.04	-.40***			
	산후 우울	부의 양육참여	.02	.03	.02	.26***	323.43***	-13.02***
부부갈등	.35	.02	.52***					

*** $p < .001$.

타났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이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산후 우울에 대한 부의 양육참여의 영향력은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이 투입되었을 때, 그 유의미한 관련성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변인인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이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다시 산후 우울 수준을 낮추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산후 우울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4.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모의 자아인식의 중재적 역할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모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인들을 표준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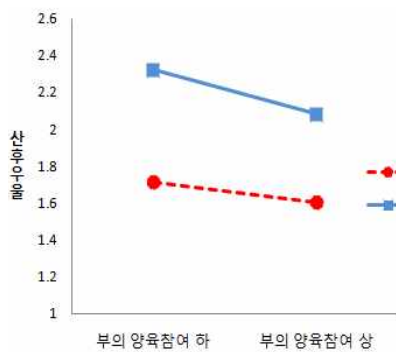
수로 변환시켰다(Frazier, Tix, & Baron, 2004).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산후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부의 양육참여와 모의 자기효능감 및 부의 양육참여와 자아존중감을 각각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부의 양육참여와 자기효능감의 이원 상호작용 및 부의 양육참여와 자아존중감의 이원 상호작용 변인을 각각 예측변인에 추가로 투입하여 산후 우울에 대한 설명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5를 보면, 1단계에서 부의 양육참여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은 산후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모델은 산후 우울 변량을 유의미하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부의 양육참여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부의 양육참여와 자아존중감은 각각 산후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부의 양육참여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및 부의 양육참여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중재적 역할을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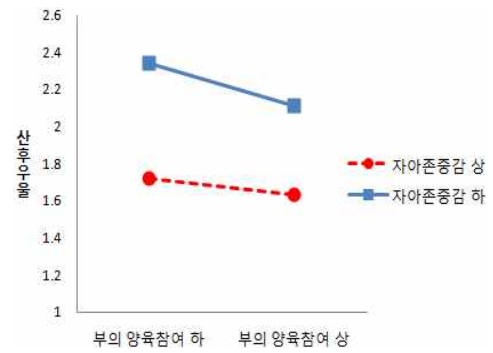
〈표 5〉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모의 자아인식의 증재효과

단계	준거 변인	예측변인	B	SE B	β	R ²	ΔR^2	F
1단계	산후 우울	부의 양육참여(A)	-.13	.03	-.10***	.32***		425.19***
		자기효능감(B)	-.82	.03	-.54***			
2단계	산후 우울	부의 양육참여(A)	-.13	.03	-.10***		.01**	286.63***
		자기효능감(B)	-.82	.03	-.54***			
		부의 양육참여 × 자기효능감(A × B)	.20	.08	.05**			
1단계	산후 우울	부의 양육참여(A)	-.08	.03	-.06**	.28***		351.07***
		자아존중감(B)	-.54	.02	-.51***			
2단계	산후 우울	부의 양육참여(A)	-.08	.03	-.06**		.01**	237.61***
		자아존중감(B)	-.54	.02	-.50***			
		부의 양육참여 × 자아존중감(A × B)	.22	.08	.06**			

** p < .01. *** p < .001.



〈그림 1〉 산후 우울에 대한 부의 양육참여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 산후 우울에 대한 부의 양육참여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

음을 의미한다.

산후 우울에 대한 부의 양육참여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단순 상호작용 효과가 각각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의 양육참여,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각각을 평균값 이상과 평균값 이하를 기준으로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한 산후 우울(준거변인)의 값을 산출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먼저 그림 1을 보면, 모의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부의 양육참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산후 우울의 편차가 자기효능

감이 높은 경우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는 모의 자기효능감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모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부의 양육참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산후 우울의 편차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는 모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 우울과 부의 양육참여, 부부관계, 모의 자아인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부의 양육참여가 결혼 만족도 및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산후 우울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모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을 조절함으로써 낮은 부의 양육참여로 인해 가중되는 산후 우울에 대한 중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로부터 조사된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후 우울과 각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산후 우울은 부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부갈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의 양육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산후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회적지지 가운데 남편의 도구적 지지에 해당하는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산후 우울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여정희, 2006; 조영숙, 1991; Williamson & English, 1981). 즉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해 양육에 있어 남편의 참여가 유일한 가족의 지원이 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출생 후 4개월 정도된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 우울은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부의 양육참여 정도가 높을 때 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긍정적 지표인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산후 우울 수준은 낮은 반면,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산후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여정희, 2006)과 부부갈등(신유경, 2011)이 산후 우울과 각각 부적, 정

적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출산과 영아기 자녀의 양육은 산모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들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남편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책임감 또한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부관계가 손상받기 쉬우므로 부부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결혼만족도가 낮거나 부부갈등이 높은 것이 산후 우울을 유발하거나 더욱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선행연구들과 일관되게, 어머니의 자아인식 요인인 자기효능감(신유경, 2011) 및 자아존중감(권정혜, 1997; 박영주 외, 2004; 조영숙, 1992)이 높을수록 산후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되었다.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자신을 가치롭게 평가하는 어머니는 양육부담이 높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산후 우울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이 각각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후 우울에 대한 부의 양육참여의 영향은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이는 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다시 산후 우울을 낮추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정적 측면의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부부갈등이 낮아짐으로 인해 산후 우울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부의 양육참여와 같은 배우자의 지지 및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관계와 산후 우울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결과는 양육부담이 커질 수 있는 영아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부의 직접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거나(이정순, 2003) 부부간의 갈등을 감소시켜, 산후 우울이 감소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에서 모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모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에 비해 부의 양육참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산후 우울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보다 많이 요구되는 영아기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남편이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다고 지각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Bandura, 1977),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게 되어 산후 우울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맥락적 특성보다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스트레스 지각에 더 중요하다는 견해(Abidin, 1992; Lazarus & Folkman, 1984)와 같은 맥락으로, 부의 양육참여 실제와 산후 우울의 관계를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보다 부의 양육참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산후 우울에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양육참여가 낮다 하더라도 자신을 수용하고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은 부의 양육참여가 높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후 우울을 경감시키는데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이 중요하지만, 부의 양육참여가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정익중, 2006; Cole et al., 2001)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양육부담

이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없더라도 산후 우울로 연결되는 것을 완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근 우울증 진료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 우울증 환자가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시점에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특히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우울증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만 1세 미만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의 양육참여가 어떻게 산후 우울과 관련되는지, 또 모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부의 양육참여가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개인적 특성임을 확인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산후 우울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부관계에 맥락적 특성으로서 아버지가 실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중요하므로, 부의 양육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함께 양육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남성의 과도한 직업적 책임(McBride & Rane, 1997)을 강조하기보다는 자녀양육에 지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산후 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결혼만족도를 높이거나 부부갈등을 낮출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셋째, 모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은 부의 양육참여가 낮더라도 산후 우울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는 개인적 자원임을 인식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출산 전후 부모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산후 우울로 진단된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집단의 우울성향에 관련되는 매개변인 및 중재

변인을 밝힌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산후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임상집단과의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 모의 양육스트레스 :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 여성 우울증, 남성보다 2배 많아.
- 권미경·김혜원·김남선·장정애(2006). 영아기 어머니의 산후 우울 정도와 모성역할 자신감, 양육스트레스, 영아기질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2(3), 314-321.
- 권정혜(1997). 심리사회적 요인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산후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취약성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6(2), 55-66.
- 김지양·김정규(2008). 산후 우울감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 연구 :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3(1), 111-140.
- 김혜라(2010). 어머니 특성과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63-278.
- 박영주·신현정·유호신·천숙희·문소현(2004). 산후우울 예측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4(5), 722-728.
- 신유경(2011). 산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자기효능감, 부부갈등, 산전 우울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영미·김정현(2003). 일반아 모와 추후 관리를 받은 저출생 체중아 모의 모성자존감, 산후우울, 가족기능의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3(5), 580-590.
- 안재진(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한국아동복지학**, 35, 127-158.
- 여정희(2006). 출산 후 6개월 여성의 산후우울 정도와 예측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4), 355-362.
- 이숙희·고인숙·최향숙(2003). **현대부모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혜·이미리·박소연(2006). **아동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정순(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7-106.
- 이제영·이경숙·정유경·신의진(2011). 산후 우울 성향 어머니와 6-8개월 영아의 상호작용 분석. **아동학회지**, 32(3), 203-220.
- 정익중(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31호**, 133-159.
-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조영숙(1991). 배우자지지가 산후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3, 70-91.
- 조영숙(1992). 산욕기 산모의 자아존중감과 산후우울과의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 97-110.
- 조현주·최규연·이정재·이임순·박문일·나중열·이근영·이종민·권정혜(2004). 산후 우울증에 대한 예측 및 임신중 우울증의 회복 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주산학회지**, 15(3), 245-254.
- 천희영·옥경희(2010). 영아 어머니 우울의 예측 변인 분석 : 어머니의 부모됨 및 양육 관련 체계 변인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59-82.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lsky, J., & Isabella, R. A. (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Civic, D., & Holt, V. L. (2000). Maternal depression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normal birth weight sample. *Mental and Child Health Journal, 4*, 215-221.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 Erlbaum.
- Cole, D. A., Maxwell, S. E., Martin,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Tram, J. M., Hoffman, K. B., Ruiz, M. D., Jacquez, F., & Maschman, T.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 Cramer, B. (1993). Are postpartum depressions a mother-infant relationship disord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4*(4), 283-297.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z,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 Gerber, K. E., Nehemkis, A. E., Farberow, N. L., & Williams, J. (1981). Indirect self-destructive behavior in chronic hemodialysis patients. *Suicide Life-Threatening Behavior, 11*(1), 31-42.
- Hammen, C. L. (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Liabsuetrakul, T., Vittayanont, A., & Pitanupong, J. (2007). Clinical applications of anxiety, social support, stressors, and self-esteem measured during pregnancy and postpartum for screening postpartum depression in Thai women. *Journal of Obstetrics & Gynaecology Research, 33*(3), 333-340.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Publishers.
- Martins, C., & Gaffan, E. (2000). Effects of early maternal depression on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6), 737-746.
- McBride, B. A., & Rane, T. R. (1997). Role Identity, Role Investments, and Paternal Involvement : Implications for Parenting Program for Ma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173-197.
- Moses-Kolko, E. L., & Feintuch, M. G. (2002).

- Perinatal psychiatric disorder : A clinical review. *Current Problems in Obstetrics, Gynecology, and Fertility*, 25, 61-112.
- O'Hara, M. W. (2009). Postpartum depression : What we know.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 (12), 1258-1269.
- O'Hara, M. W., Schlechte, J. A., Lewis, D. A., & Varner, M. W. (1991). Controlled prospective study of postpartum mood disorders : Psychological, environmental, and hormonal variab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63-73.
- O'Hara, M. W., & Zekoski, E. M. (1988). Postpartum depression : A comprehensive review. In R. Kumar & I. F. Brockington(Eds.), *Motherhood and Mental Illness 2 : Causes and Consequences*. London : Wright.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Philipps, L. H., & O'Hara, M. W. (1991). Prospective study of postpartum depression : 4½-year follow-up of women an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2), 151-155.
- Righetti-Veltama, M., Bousquet, A., & Manzano, J. (2003). Impact of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on mother and her 18-month-old infant.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4), 75-8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 Stern, D. N. (1995). *The motherhood constellation*. New York : Basic Books.
- Tennen, H., & Herz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72-80.
- Williamson, P., & English, E. C. (1981). Stress and coping in first pregnancy : Couple-Family physician interaction.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13(5), 629-635.

2011년 8월 31일 투고, 2011년 11월 21일 수정
2011년 11월 23일 채택